

■ 한국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분석보고서 4

청소년 진로상황의 불확실성에 대한 보호요인 및 위험요인의 탐색

책임연구원 : 임희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유제민(강남대학교 · 교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중2패널의 1, 2, 3, 4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진로 발달과 관련된 많은 변인들 중에 어떤 변인들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상호 작용하여 진로 선택에 이르는지에 관한 분석
- 청소년 진로상황의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구체화
- 진로 발달에 대한 맞춤형 상담 모형 탐색

2. 주요 연구내용

- 중학교 2학년생의 진로 불확실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예측하는 변인은 생활만족도로서 만족도가 보통이하일 경우 진로 불확실성이 증가하였음(24.23). 부모님의 기대와 상충하지 않거나 벅차다고 느끼지 않는 경우에는 진로 불확실성이 높지 않았으나(21.79) 부모 기대와의 상충은 진로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이었음. 학업성적이 부진한 학생은 학력이 높은 아버지의 기대에, 그리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학력이 높은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벅차고 힘들 경우, 진로 불확실성이 증가하였음.
- 중학교 3학년생들은 진로에 대한 부모와의 갈등이 보다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진로에 대한 부모와의 의견차이가 클수록 진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었으며(24.83), 특히 이러한 중학교 3학년생은 컴퓨터를 이용하는 시간이 길수록(3.5시간 이상) 진로 불확실성은 보다 증가하였음. 생활만족 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향후 진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경

우 진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들에게 쓰이는 한 달 사교육비가 10.5 만 원 이하인 경우 진로 불확실성이 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23.27) 이들에게는 특히 정보 제공이나 부모의 지원 및 적극적인 관여가 학생들에게 긍정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보임. 학업성적이 진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시사된 것도 이 시기의 주목할 만한 특징임.

- 고등학교 1학년생들은 사회적 관계를 통한 자의식이 진로 상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음. 특히 이들은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는다는 현실에 보다 더 좌절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친구로부터 잘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진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아 부모의 대체 기준으로서 친구 집단의 영향력이 지속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 친구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실패의 느낌과도 직결되어 있으며 역시 진로 불확실성을 가중시킴.
- 고등학교 2학년들의 진로 불확실성 모델에서는 개인적인 특성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확인됨. 생활만족도가 낮은 고등학교 2학년생들은 전반적인 불만족 요인을 자기 자신의 문제로 귀인할 경우 보다 진로에 확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28.06). 이러한 자신의 문제들로 인해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진로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지거나(29.7) 충동성이나 통제력의 부족 등이 시사되는 개인적 특성이 있을 경우에도 진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친구들의 놀림이나 무시를 받더라도 부정적인 자아상이 두드러지지 않을 경우 진로 불확실성이 감소하였고, 놀림이나 무시가 없어도 신경증적 경향성으로 추정되는 정서적인 불안정성이 클 경우 진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는 이전 시기와는 달리 친구들의 영향이 결정적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특성과 상호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3. 정책제언

- 진로 발달에 대한 맞춤형 관리 시스템 구축: 데이터 마이닝을 이용하여 청소년의 진로상황이나 생활만족도에 관한 결정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이나 관계를 검증함으로써 개별적인 맞춤형 개입방안(tailored intervention)을 도입할 수 있음. 학교생활기록부 및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활용한 진로교육을 추진하고 특정한 상태에 있는 청소년의 진로상황이나 생활만족도를 가장 잘 설명하는 구체적인 조건들을 고려한 상담 모형을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음.
- 학교 교육과정 및 체험 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 강화: 현재 중등학교는 입시위주 교육에 치중하여 학교의 진로교육 기능이 미흡함. 본 연구의 결과도 진로 관련 도움 프로그램이 거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전문성이 없는 지도자에 의해 수행되었거나 유명무실한 제도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학교 교육과정 및 체험 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이 다양화되어야 함.
- 진로교육 담당교사 전문성 제고: 교사가 실제적인 진로 상담자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교사의 역할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음. 청소년들은 교사들을 합리적인 의사 결정의 정보원으로서 활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직관과 판단을 단정하기 위한 부차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여겨짐. 교사 양성 과정, 진로교육 관련 교사 연수 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함.
- 저소득층을 위한 진로 관련 프로그램 서비스 확대: 저소득층 자녀 진로 관련 프로그램 서비스 확대가 필요함. 저소득층 청소년의 근로의욕 고취 및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직업체험, 교육훈련 및 취업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여 저소득층 자녀의 진로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야 함.

목 차

I. 서 론	1
II. 이론적 논의	
1.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7
1) 대인 관계	7
(1) 부모와의 관계	7
(2) 교사와의 관계	8
(3) 친구와의 관계	9
2) 개인 특성	10
(1) 성별	10
(2) 자아존중감	11
(3) 상황정의	11
2.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의 장점	12
III. 분석자료 및 연구방법	
1. 분석자료	19
2. 개념의 정의 및 자료의 분석방법	20
IV. 분석결과	
1. 중학교 2학년생(1차년도)의 진로 불확실성 결정모델	25
2. 중학교 3학년생(2차년도)의 진로 불확실성 결정모델	31
3. 고등학교 1학년생(3차년도)의 진로 불확실성 결정모델	37
4. 고등학교 2학년생(4차년도)의 진로 불확실성 결정모델	43
V. 요약 및 제언	
1. 연구의 요약	53
2. 정책적 제언	57
참고문헌	59

표 목차

<표 III-1> 진로상황의 불확실성 문항	21
<표 IV-1> 진로 불확실성 모델(중학교 2학년생)의 이익지수	30
<표 IV-2> 진로 불확실성 모델(중학교 3학년생)의 이익지수	37
<표 IV-3> 진로 불확실성 모델(고등학교 1학년생)의 이익지수	42
<표 IV-4> 진로 불확실성 모델(고등학교 2학년생)의 이익지수	49

그림 목차

[그림 IV-1] 중학교 2학년생의 진로 불확실성 모델	27
[그림 IV-2] 중학교 3학년생의 진로 불확실성 모델	33
[그림 IV-3] 고등학교 1학년생의 진로 불확실성 모델	39
[그림 IV-4] 고등학교 2학년생의 진로 불확실성 모델	45

I. 서론

I. 서론

개인의 심리사회적 상태는 청소년들의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연령에 따라 발달적으로 진행되는 일종의 의사결정 과정(process)이다(Phinney, 1992). 따라서 진로 결정의 과정을 밝히기 위해서는 진로를 선택하는데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시기적인 작용과 이들 변인들 간의 조합적인 관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진로 선택에 관한 전통적인 연구들은 연령별 이행을 중시하는 발달적 혹은 과정 중심적 접근에 치우쳐 있었고 최근의 개인차 접근의 연구들도 개인, 학교 또는 친구 변인들의 단일한 특성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두어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진로 발달과 관련된 많은 변인들 중에 어떤 변인들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진로 선택에 이르는지를 밝히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기는 현실적인 한계와 결정적 기회라는 점 때문에 진로 지도나 상담이 긴급하게 요구되는 대상이다(고향자, 1992; 이재창, 1987).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진로 선택과 그 결정이 이 시기에 현실화된다고 전제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진로 선택 요인과 그 영향력이 학년의 진행에 따라 일정한 양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본 연구는 개인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토대로 진로 결정을 조망하는 요인 특성적 관점과 진로 선택의 결정적 시기라는 발달적 관점을 모두 고려하여 수행된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개인적 요인에 대한 상호 작용과 시기적 변화를 시사한다는 점에서 진로 발달에 대한 맞춤형 상담 모형을 개발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논의

1.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2.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의 장점

II. 이론적 논의

1.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1) 대인 관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은 부모, 교사, 친구를 청소년에게 의미 있는 타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김연희(1998)는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과정에서 타인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정보가 자기능력의 지각에 영향을 주어 자신에 대한 인식이나 적응 능력을 달라지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긍정적인 대인 관계는 청소년의 균형된 심리사회적인 적응을 이끄는 주요 요소이다. 청소년 초기에서는 부모를 통한 지지가 가장 중요하게 지각되나 청소년 후기로 갈수록 청소년의 인성, 사회기술, 사회적 행동 발달에 있어서 부모보다는 친구로부터의 지지가 중요해진다. 청소년 초기에는 안심감과 만족감을 부모와의 관계에서 얻다가, 청소년 후기에는 부모보다는 또래에게 평가받는 것을 우선시하게 된다.

(1) 부모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는 청소년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부모를 신뢰하고 부모가 자신을 이해해준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은 가정생활 뿐 아니라, 학교생활, 친구관계에서도 비교적 좋은 관계를 형성한다.

청소년의 사회적·정서적 적응에 관련된 변인들 가운데 부모에 대한 애착은 청소년이 어떤 문화권에서 성장하고 생활하는지에 관계없이 적응을 가능하게 하는 보편적인 기제로 간주되고 있다(Bowlby, 1982). 어린 시기에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 애착은 일종의 내적 작동 모델(internal working model)로 기능하면서,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경험하게 되는 인지적, 사회적 경험들에 능동적이고 긍정적으로 적응하도록 하여 건

강한 발달을 돕기 때문이다(Bowlby, 1988). 실제로 부모에 대한 안정된 애착관계의 형성은 학업성취, 학습동기, 사회적 관계, 정서적 안정, 자아존중감, 학교규칙 준수 등을 향상시켜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학교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도록 한다(Ryan et al., 1994).

문은식(2002)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와의 관계가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학습동기와 심리적 안녕의 향상을 통해서 학교적응이 이루어진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이고 애정적인 부모는 자녀의 자아존중감에(고병채, 1990; 장영주, 1995; Rosenberg, 1965), 부모의 태도가 자녀의 활동에 많은 간섭을 하고 엄격한 통제를 하는 부모는 자녀의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이은희 외, 2000; 이지연 외 2006)고 알려져 있다.

(2) 교사와의 관계

교사는 아동들이 부모 다음으로 가장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성인으로, 사회 성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이나 가치, 태도, 기술 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DuBois et al.(1992)은 교사로부터 높은 수준의 지지를 받은 청소년은 심리적 우울감을 적게 느꼈고, 낮은 가족 지지를 받은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교사의 지지가 보상의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였다. Bowen과 Chapman(1996)은 지지적인 교사 역할이 특히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혔다.

Birch & Ladd(1997)의 연구에 의하면, 학급 교사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아동들은 학교 환경을 더욱 지지적으로 지각하게 되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된다. 교사와의 관계가 우호적일수록, 교사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학교적응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문은식, 2002; 정규석, 2004; 최지은·신용주, 2003).

학생이 학급교사와 가까운 관계를 맺거나 학교 환경에 대해 긍정적인 정서와 태도를 가지고 있을수록 학급 내의 학습활동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학교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경아·정현희, 1999).

또한 이경아·정현희(1999)는 교사와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학생 일수록 학업 성취도가 낮을 뿐 아니라 비행 및 또래관계에 문제를 나타낼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하고, 긍정적인 관계형성에 염두를 둔 학생지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신현숙(2004)은 교사의 지지는 구조적 해체, 재정적 문제, 부모의 품행 및 건강문제, 기타 가족의 역기능과 같은 여러 유형의 가정환경 역경에 처한 청소년들을 성공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적응유연한(resilient)’ 집단과 부적응하는 ‘취약한(vulnerable)’ 집단으로 구분하는 데 있어서 유의한 변별 변인으로 보고하였다.

(3) 친구와의 관계

아동기까지는 부모, 형제 등 가족과의 관계가 주된 사회적 관계였지만, 청소년기는 가족으로부터 독립욕구가 강해지면서 또래집단에 상대적으로 강한 애착을 보이는 발달적 특성을 갖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또래는 매우 중요한 정서적 지지의 자원이자 자아개념 준거의 틀이 되기도 한다.

Furman & Buhrmester(1992)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모와의 관계에서 제공되는 지각된 지지 점수는 점차 감소하는 반면, 또래와의 관계에서 제공받는 것으로 지각된 지지 점수는 꾸준히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친구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은 청소년의 자기거부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Kaplan et al., 1983), 또래관계가 원만하고 또래 지지에 대한 지각이 높을수록 자신의 사회적인 능력 지각 또한 높게 나타난다(강민주·전경숙, 1995). 친구와의 관계가 우호적이며 만족스러울수록, 학급 내에 친한 친구의 수가 많을수록, 친한 친구와의 갈등이 적을수록 학교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문은식, 2002; 정규석, 2004; 최지은·신용주, 2003).

또래관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Doll(1996)은 아동이 맺는 또래관계가 학교 내에서의 정신건강 문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는 또래관계가 아동의 학업적 혹은 사회·정서적인 문제를 경고해주며, 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고 하였다. 또래들과 맺는

관계는 청소년의 학교에 대한 심리적인 안정감에 매우 중요하며, 자아존중감도 학업수행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청소년의 학교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특히 친구가 없는 외톨이 아동은 또래와의 행동문제나, 사회인지적 과제에 있어서의 어려움, 제한된 정서표현, 사회적 상황에 있어서의 자신감 저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제한된 참여 등 학교 적응과 관련이 있는 여러 영역에서 어려움을 보임을 밝히고 있다(이경아·정현희, 1999)

문은식(2005)은 중·고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 및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이 높고, 심리적 안녕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상대적 영향력은 중학생의 경우 친구가 가장 높다고 하였다.

2) 개인 특성

(1) 성별

청소년기 발달에 있어서 사회성의 획득 과정과 사회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성차에 대해서는 일관된 견해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King et al.(1999)은 자아존중감의 성차에 대해서 1987년부터 1995년까지 수행된 연구의 메타분석을 통하여 남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여자 청소년보다 높으나 그 차이는 매우 적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Josephs et al.(1992)은 Rosenberg self-esteem scale로 자아존중감을 측정한 결과 성차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이은영·탁영란(2001)의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의 성차는 발견되지 않았고,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청소년기의 남학생인 경우 동료 집단과 학교 생활에서의 평가가 자신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그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여학생들은 학교, 가족, 동료 집단에서 타자와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자신의 자아존중감이 형성되며 이것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자기 효능감에 있어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다는 보고(송호창, 2006)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다는 보고(홍혜영, 1995), 성차가 없다는 보고(강상민, 2002) 등 성차는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2) 자아존중감

청소년들의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을 들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 뿐 아니라 정신건강과도 관련을 맺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기의 우울증과 직접적인 상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높은 자아존중감은 긍정적인 정서와 관련이 있고, 낮은 자아존중감은 부정적인 정서와 우울과 관련이 있다(Avison & McAlpine, 1992; Brage & Meredith, 1994; Brown & Mankowski, 1993).

(3) 상황정의

박병진(2006)은 학생들은 자기를 둘러싼 상황에 대해 그 자신 스스로 정의(definition)를 내림으로써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상황에 대한 정의는 한편으로는 학생이 학교라는 조직 속에 처한 상황이라는 제도적 수준에 관한 상황정의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선택한 행동의 가능성에 대한 그 자신의 인식과 평가의 측면인 개인의 자아인식이기도 하다고 설명하고, 학생들은 공통적 경험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상황정의를 내리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상급학교로의 진학과 학업성취도에 있어서의 차이가 부모의 경제, 문화, 사회자본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고 이러한 차별화의 과정을 학생과 학교 그리고 교사가 서로 상호 접촉하는 가운데 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 그 자신의 상황정의(definition of situation)의 과정을 통해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2.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의 장점

데이터 마이닝은 방대한 양의 자료 속에서 의미 있는 패턴과 규칙을 찾아내기 위해 자동적이거나 반자동적인 방식으로 자료를 탐색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즉, 대용량의 자료에 존재하는 자료간의 관계, 패턴, 규칙 등을 찾아내고 모형화 한 후 최적의 의사결정을 목표로 스스로 정보를 변환하는 자가 수정 통계 기법이다.

전통적인 통계 분석에서는 통계적 이론 모형이 설정되고 그에 따라 분석이 이루어지는 하향적 방식인데 비해 데이터 마이닝은 통계적 가정이나 전제 없이도 자료 속에서 자료구조의 패턴을 바탕으로 새로운 예측이나 설명 모형을 만들어 내는 상향적(bottom-up)방식이라는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즉, 일반적인 통계와 데이터 마이닝은 접근하는 방식이 상반된다. 무엇보다도 데이터 마이닝은 정상성(normality)이나 선형성(linearity) 그리고 등분산성(homogeneity) 같은 통계적 가정에 좌우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통계방법에서는 척도(scale)가 혼재된 변인들을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 가(dummy) 변수를 만들거나 척도를 미리 통일하는 과정에서 중요하지만 변환시키기 어려운 자료들을 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가공한 변인들이 정상성을 크게 충족시키지 못하면 일반화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대용량의 자료를 통계 분석을 위해 통일시키려 하거나 정상성을 굳이 가정하는 것이 비현실적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데이터 마이닝은 비모수적(non-parametric) 기법에 가깝다.

선형성의 가정은 회귀 분석 등에서 특히 중요한 문제이다. 변수간에 비선형적 관계가 두드러질 때는 회귀 분석의 정확도가 극적으로 저하된다. 로지스틱 방식으로 대체할 수도 있지만 마이닝의 일종인 신경망 분석에서 사용하는 MLP방식은 비 선형 시그모이드 함수와 탄젠트 함수를 이용하여 독립변인들간의 가능한 상호 작용을 모두 포함시켜 비 선형적 예측을 하기 때문에 회귀 분석의 R^2 값보다 최소한 두 배 이상의 설명력을 산출시킨다.

전통적인 통계 방법에서는 결측치(missing value)가 많을 경우에도 문제

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자들은 사례들의 경향으로 적당히 추정을 하거나 혹은 평균값으로 대체하고 여의치 않으면 아예 삭제하는 경우가 많다. 이질적인 척도와 수많은 결측치, 다양한 오차 범위들을 감안한다면 등분산성의 가정은 성립이 불가능하다. 결측치들을 평균값으로 대체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결측된 변인들과 가장 상관이 높은 값들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지만 척도가 다르다면 이 역시 문제가 된다. 게다가 그 사례 내에서 관련이 있어 보이는 변인들까지도 누락되어진 경우가 많다면 이 방법도 채택하기 쉽지 않다. 무엇보다도 결측치가 발생하면 전체 표집 내에서 지정된 처리 변인의 셀 크기가 누적적으로 축소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 변인들의 통계적 결과는 원래 표집의 특성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즉, 원칙적으로 말하면 nested 한 포함관계가 성립되면서 오차와 분산의 계산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데이터 마이닝에서는 예측하는 종속변인이 바뀔 때마다 각 독립변인의 함수를 산출하고 이 변인과 가장 유사한 설명력을 가지는 변인들을 순서대로 등재시키는 방식(surrogate ranking)을 사용한다. a 변인이 누락되어 있다면 그와 가장 유사한 설명력을 가지는 b값으로 대체되고 b도 없다면 다음 순위인 c값이 대체되는 것이다. 이 순위는 고정된 것이 아니며 종속변인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바뀐다. 따라서 데이터 마이닝에서는 연구자가 역지로 자료를 가공할 필요가 없다.

변인들간의 상호작용(interaction)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회귀나 로지스틱 방식에서 두 변인(a,b)간의 교차항($a*b$)을 만들고 이 교차항의 ΔR^2 값으로 상호작용의 유의미성을 파악할 수 있지만 변인이 여러 개일 경우 모든 상호작용을 모형에 포함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의사결정 나무 분석의 CHAID방식의 경우 가능한 모든 상호작용을 자동적으로 탐색해 낸다. AID라는 용어가 automatic interaction detection이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군집 분석은 각 변인들의 중요성이 똑같다고 가정하고 어떤 데이터가 가깝게 분류되는지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패턴의 해석을 연구자의 자율에 맡긴다. 이에 비해 데이터 마이닝의 최 인접이웃(Nearest Neighbor, NN)기법은 예측을 수행하려는

변인 및 그 범위를 지정한 상태에서 가장 적절한 군집 수와 그 패턴이 산출되기 때문에 군집의 해석은 변인의 변화 과정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구자들은 연구 설계에 맞는 통계를 적용시키려고 노력한다. 가설설정-설계-통계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라도 수정되면 나머지도 바꾸어야 한다. 연구자는 이 과정을 능숙하고 빠르게 시행하는 전문가이다. 그러나 마이닝의 신경망 분석(neural networks)에서는 이 과정을 스스로 수행한다. 신경망 모형은 인간두뇌의 학습과정을 시냅스 작용을 통한 연산과정으로 재현한 데이터 마이닝 기법의 일종이다. 이 방법은 실제 출력 값과 기대 출력 값을 비교하고 그 차이를 시냅스 역할을 하는 노드(node)에 가중치를 주어 조정 한 후 그 과정을 신경망 구조가 안정화될 때까지 반복함으로써 예측 및 분류 모형을 자가 창출한다. 스스로 피드백을 주어가면서 수정하는 역-전파 망 방식(back-propagation network)으로 경험을 통한 학습 과정을 기계적으로 단축시킨 것이다. 이에 따르면 연구자들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변인들의 선정과 관련 데이터의 확보 그리고 산출된 결과의 해석과 그 응용력이다.

데이터 마이닝은 기본적으로 대용량의 자료 즉, 큰 표집을 전제로 한다. 엄격하게 말하면 표집의 수는 통계기법, 문항 수, 신뢰구간, 오차 범위 등을 모두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데이터 마이닝에서는 표집의 수보다 보유한 데이터가 얼마나 풍부한 설명요인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 훨씬 중요하다. 현재 데이터 마이닝은 표집의 수를 감안하고 이로 인해 초래되는 한계를 극복하려는 방식으로 발전되고 있다. 따라서 임상이나 상담 그리고 건강 관련 분야에서는 표집의 수를 늘리는 것 보다 각 사례의 특성(변인) 수를 보다 많이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 데이터 마이닝에서는 표집의 수가 많은 경우와 각 사례의 변인수가 많은 경우 적용하는 기법들이 따로 개발되어 있다.

데이터 마이닝은 현재 기업 생존전략의 핵심인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의 근간이 되고 있기도 하다. 즉, 광범위한 정

보를 활용하여 개별적 소비자의 특성을 세분화시키는 소위 “맞춤식 전략”에 활용되고 있다(Ball, 2000). 이러한 방식은 청소년의 진로상황이나 생활만족도에 관한 위험 요인들(risk factors)을 제거하고 보호 요인들(protective factors)을 개발하려는 정책 분야의 효율성도 극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 모수적 통계 방식으로 처리된 기존의 청소년 관련 연구의 결과들은 현실적인 적용에 있어 방법론적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진로상황이나 생활만족도에 관한 결정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이나 관계를 검증하고 개별적인 맞춤형 개입방안(tailored intervention)을 시사하는 데 데이터 마이닝을 통한 모형의 구축이 가장 효과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요인들(인구 통계학적 특징, 직업선택, 향후 진로설정, 진로준비, 여가상황, 기타생활, 시간배분, 자아관, 생활스트레스 그리고 가족관계 및 사회 경제적 환경)을 세분화하여 정책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특정한 상태에 있는 청소년의 진로상황이나 생활만족도를 가장 잘 설명하는 구체적인 조건들이 따로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를 확인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Ⅲ. 분석자료 및 연구방법

1. 분석자료
2. 개념의 정의 및 자료의 분석방법

III. 분석자료 및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중2패널 1, 2, 3, 4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KYPS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03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모집단으로 층화다단계 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 방법에 의해 표본으로 뽑은 3,697명의 청소년들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동일표본 반복 추적조사이다.

1차년도 자료는 2003년 10월 27일부터 12월 20일까지 수집되었다. 자료수집 결과, 3,449명의 청소년 및 학부모가 응답하였으며, 이 중 남학생이 1,725명이고 여학생은 1,724명이었다.

2차년도 자료는 1차년도 조사결과 최종 표본으로 구축된 3,449명의 청소년들 및 부모들을 대상으로 2004년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집되었다. 조사 결과, 청소년을 기준으로 3,449명의 92.4%인 3,188명이 응답하였다.

3차년도 자료는 3,449명의 청소년들 및 부모들을 대상으로 2005년 10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수집되었다. 조사 결과, 청소년을 기준으로 3,449명의 90.6%인 3,125명이 응답하였다.

4차년도 자료는 3,449명의 청소년들 및 부모들을 대상으로 2006년 10월 23일부터 12월 22일까지 수집되었다. 조사 결과, 해외유학 및 이민, 거절, 연락두절 등의 이유로 조사 실패한 표본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응답한 사례수는 청소년을 기준으로 3,449명의 90.5%인 3,121명이었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는 부모의 학력, 가구수입 등을 부모들을 대상으로 직접 측정했다는 점에서 보다 정확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이경상·강영배, 2006).

2. 개념의 정의 및 자료의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진로상황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모든 조건이나 상황을 위험 요인(risk factors)이라고 정의하였다. 단일한 위험요인으로 특정한 변인을 예언하기는 쉽지 않지만 여러 개의 위험 요인들이 중복되면(cumulative) 특정한 구체적인 변인의 특성들을 더 신뢰롭게 예언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진로상황의 확실성을 고양시키는 조건이나 상황을 보호 요인(protective factors)이라고 정의하였다. 위험 요인들이 있어도 진로상황의 확실성이 고양되고 생활만족도가 유지되고 있는 청소년들은 무엇인가 보호 요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위험 요인이나 보호 요인들의 목록들은 개인의 상태나 다른 조건들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보호 요인이라 할지라도 계속 보호 요인으로 기능할지는 단언할 수 없으며 심지어 지금 보호 요인이 다른 조건 및 상태에서는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데이터 마이닝에서는 개인의 상태나 조건들이 구체적으로 달라질 때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실시간의 확률(%)로 계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데이터 마이닝의 의사결정 나무(decision tree)기법에서는 조건들의 세부적 분지(spliting)와 결합(merging)절차를 통하여 이 과정을 추론하고 각 조건이나 변인이 추가될 때마다 모형들을 연속적으로 비교한다. 의사결정 나무 분석은 결정규칙에 따라 나무구조로 도표화하여 분류(classification)와 예측(prediction)을 수행하는 방법으로서 판별분석과 회귀분석을 조합한 마이닝 기법이다. 이 분석은 측정 자료를 몇 개의 유형으로 분류하는 세분화(segmentation), 결과변인을 몇 개의 등급으로 구분하는 분류(classification), 여러 개의 예측변인 중 결과변인에 영향력이 높은 변인을 선별하는 차원축소 및 변수선택(variable screening)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 적합하다.

본 연구의 독립변인들은 인구 통계학적인 상태들과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제반 변인들이며 종속변인은 학생들의 신체, 심리, 사회적인 제반 상태로 추정한 진로상황의 불확실성이었다. 여기서 진로 불확실성은 단순히 취업이나

학업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연령 증가에 따른 제반 과업들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총체적 상태를 의미한다. 진로 불확실성에 대한 문항은 <표 III-1>과 같다. 이 문항들은 모두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표 III-1> 진로상황의 불확실성 문항

문항번호	문항내용
10- 1)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편이다
10- 2)	심리적 혹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10- 3)	집안 경제사정이 어려워 곤란을 겪는 중이다
10- 4)	부모의 가정불화, 이혼 등으로 가정에 대한 불만이 높다
10- 5)	학교 교칙이나 규정에 적응하기가 어렵다
10- 6)	학교 공부에 흥미도 없고 따라갈 수가 없다
10- 7)	비행(범죄)로 학교의 경고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10- 8)	학교 친구들과의 사이가 좋지 못한 편이다
10- 9)	학교 선생님들과의 사이가 좋지 못한 편이다
10-10)	현재 다니는 학교는 진학에 유리하지 못하다
10-11)	현재 다니는 학교는 나의 특기나 소질을 살리는데 한계가 있다
10-12)	조만간 가족 전체가 이사를 갈 예정이다
10-13)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힘들어서 학교 다니기가 많이 피곤하다

종속변인과 관련된 제 1수준의 결정요인으로서 생활만족도가 자동 설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명명 척도와 연속 척도 등이 혼합된 400여개의 독립변인들을 동시에 투입하여, 연속형 종속변인인 진로상황의 불확실성 정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변별하는 독립변인들의 조합조건들을 각각 연령대별(중2, 중3, 고1, 고2)로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연령대별로 각 모델이 산출되었다. 청소년들의 진로 불확실성은 개별변수의 평균값을 예측변인으로 하고 그에 따른 분산(improvement)의 감소를 이용하는 CART 방식을 사용하였다. CART 방식은 각 마디의 평균값을 예측값으로 사용하므로 마디가 진행될수록 평균값은 증가하고 분산은 감소한다. 그리고 가장 예측력이 높은 변인으로 형성되는 뿌리마디로부터 자식마디의 수, 즉 회귀나무의 예측수준은 부모마디와 자식마디를 구성하는 사례수를 제한하여 결정하는데, 본 연구에서

는 예측모형의 간명성을 위해 부모마디(parent node)와 자식마디(child node)의 사례 수는 100과 50으로 각각 설정하였다. 정지규칙으로 최대한의 나무깊이(maximum tree depth)는 4 수준이었으며, 결측치(missing values)는 특정마디에서 예측이 일치하는 순서에 따라서 대체규칙(surrogate rule)을 설정하였다. 자료의 분석절차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제반 변인들을 통해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진로상황의 불확실성 정도를 예측하는 정도를 수준별 각 마디의 평균과 분산으로 평가하였다. 분산의 정도는 위험추정치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최종모형의 예측력과 효율성은 이익지수를 통해 산출하였다. 최종적으로 도출한 모형에 대한 타당성은 전체 응답자를 열 개의 집단에 무선 할당하여 위험추정치를 기준으로 모형의 결과를 비교하는 10—fold 교차타당화(10—fold cross validation)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사용 프로그램은 의사결정 나무 분석(decision tree analysis)을 수행하는 Answer Tree 3.1v(2003)이었다.

IV. 분석결과

1. 중학교 2학년생(1차년도)의 진로 불확실성 결정모델
2. 중학교 3학년생(2차년도)의 진로 불확실성 결정모델
3. 고등학교 1학년생(3차년도)의 진로 불확실성 결정모델
4. 고등학교 2학년생(4차년도)의 진로 불확실성 결정모델

IV.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현실적으로 진로 지도의 결정적 시기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이행하는 전후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문계와 실업계로 학교가 구분되고 진학을 하는 경우에도 문과와 이과로 구체적인 분야가 고정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2, 중3, 고1, 고2 학년의 시기적 이행과정에 초점을 두었다. 이 시기 별로 진로상황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개인차 요인과 가정, 학교 및 친구요인들이 무엇이며 그 변인들이 상호 작용하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분석방법을 통하여 위험 및 보호요인들의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학년 별로 진로 불확실성을 예방 또는 지도하는 방안을 시사할 수 있었다.

1. 중학교 2학년생(1차년도)의 진로 불확실성 결정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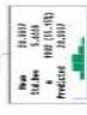
중학교 2학년생의 진로 불확실성을 결정하는 모형은 [그림 IV-1]에 제시되어 있으며, 나무구조를 통해 변수의 분리 규칙을 추론할 수 있다. 즉, 그 변인을 적용하고 각 마디의 구간 특성에 따라 분리되었을 때 마디 내 분산은 감소하고 이 구분에 따른 예측의 정확성이 증가하는 정도를 증가분(improvement; 이하 i)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과정을 자동적으로 반복하면서 예측나무가 형성된다. 먼저 형성된 상위 마디의 변인일수록 중요하며 자식마디의 특성들이 누적되어가면서 최종적인 예측율은 점차 증가하지만 각 조건에 따른 개별적인 i 는 점차 줄어든다.

진로특성평가



16. 특성을 평가한 점 (평균)을 평가한 점 (평균)과 비교하여 (평균)

17. 특성을 평가한 점 (평균)을 평가한 점 (평균)과 비교하여 (평균)



18. 특성을 평가한 점 (평균)을 평가한 점 (평균)과 비교하여 (평균)



19. 특성을 평가한 점 (평균)을 평가한 점 (평균)과 비교하여 (평균)



20. 특성을 평가한 점 (평균)을 평가한 점 (평균)과 비교하여 (평균)



21. 특성을 평가한 점 (평균)을 평가한 점 (평균)과 비교하여 (평균)



22. 특성을 평가한 점 (평균)을 평가한 점 (평균)과 비교하여 (평균)



23. 특성을 평가한 점 (평균)을 평가한 점 (평균)과 비교하여 (평균)



진로특성평가



16. 특성을 평가한 점 (평균)을 평가한 점 (평균)과 비교하여 (평균)

17. 특성을 평가한 점 (평균)을 평가한 점 (평균)과 비교하여 (평균)



18. 특성을 평가한 점 (평균)을 평가한 점 (평균)과 비교하여 (평균)



19. 특성을 평가한 점 (평균)을 평가한 점 (평균)과 비교하여 (평균)



20. 특성을 평가한 점 (평균)을 평가한 점 (평균)과 비교하여 (평균)



21. 특성을 평가한 점 (평균)을 평가한 점 (평균)과 비교하여 (평균)



22. 특성을 평가한 점 (평균)을 평가한 점 (평균)과 비교하여 (평균)



23. 특성을 평가한 점 (평균)을 평가한 점 (평균)과 비교하여 (평균)



[그림 IV-1] 중학교 2학년생의 진로 불확실성 모델

[그림 IV-1]의 증가분(improvement; 이하 i)을 비교하면 알 수 있듯이, 진로 불확실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예측하는 변인은 생활만족도로서 만족도가 보통이하일 경우 진로 불확실성이 증가하였다(평균=24.23, 이하 괄호 안 평균 명칭 제외). 특히 생활만족도가 낮은 학생들은 학교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할수록 진로 불확실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25.42). 이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보통 이상인 학생들은 특히 수학 성적이 못하거나 그 이하(매우 못하는) 경우 진로 불확실성이 증가하였다. 특히 이 조건의 학생들은 부모님의 기대가 벅차다고 느끼는 경향이 많을수록(24.23) 더 불확실성이 증가하였다. 부모님의 기대와 상충하지 않거나 벅차다고 느끼지 않은 경우에는 진로 불확실성이 높지 않았으나(21.79) 이 경우라도 아버지의 학력이 높은 경우 불확실성이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만족도가 높고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도 친구 관계가 좋지 않을 경우 불확실성이 증가하였다. 부모기대와의 상충은 이러한 특성을 가진 학생들에게도 진로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이었다.

중학교 2학년 모델에서는 부모로부터의 탈동일시(deidentification)와 친구관계의 영향이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특히, 학력이 높은 부모의 기대가 큰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었는데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아버지의 학력에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어머니의 학력 수준에 따라 기대와 압력을 동시에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러 연구에서 어머니의 최종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력이 높았으며(이혜영, 2001), 이후 자녀의 평생교육에 대한 참여율도 높은 것이 남녀 모두에게 공통적인 현상이었다(최돈민, 양홍권, 이세정 2005). 본 연구에서도 자녀의 교육과 진로에 대한 동기부여라는 측면에서 어머니의 학력수준은 강력한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학생의 성적 수준이 낮을 경우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은 이 시기의 학생에게 진로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게 하는 요인이었다. 우리나라와 같은 학력중심사회에서 자녀의 낮은 학력수준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지위의 하락이나 고착화 가능성 때문에 특히 아버지의 기대와 압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아버지의 학력은 자녀의 최저학력에 그리고 어머니

의 학력은 자녀의 최고 학력에 영향을 더 크게 미친다는 연구결과(Battin-Pearson, Newcomb, Abbott, Hill, Catalano, & Hawkins, 2000))가 발표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업수준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중학교 2학년부턴 부모의 기대와 이로 인한 압력으로 인해 진로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다.

중학교 2학년생들을 대상으로 한 의사결정 나무 분석의 최종결과는 <표 IV-1>에서와 같은 이익도표를 통해 해석될 수 있다.

<표 IV-1> 진로 불확실성 모델(중학교 2학년생)의 이익지수

Node	이익지수				누적지수			
	Node:n	Node:%	Gain	Index%	Node:n	Node:%	Gain	Index%
3	562	16.29	25.42	113.30	562	16.29	25.42	113.26
8	167	4.84	24.23	108.00	729	21.14	25.15	112.05
4	985	28.56	23.55	104.90	1714	49.70	24.23	107.95
14	166	4.81	23.15	103.10	1880	54.51	24.13	107.53
12	246	7.13	22.57	100.50	2126	61.64	23.95	106.72
16	419	12.15	21.00	93.56	2545	73.79	23.47	104.55
13	86	2.49	20.95	93.36	2631	76.28	23.38	104.19
15	743	21.54	19.44	86.60	3374	97.83	22.52	100.31
11	75	2.17	19.28	85.90	3449	100.00	22.44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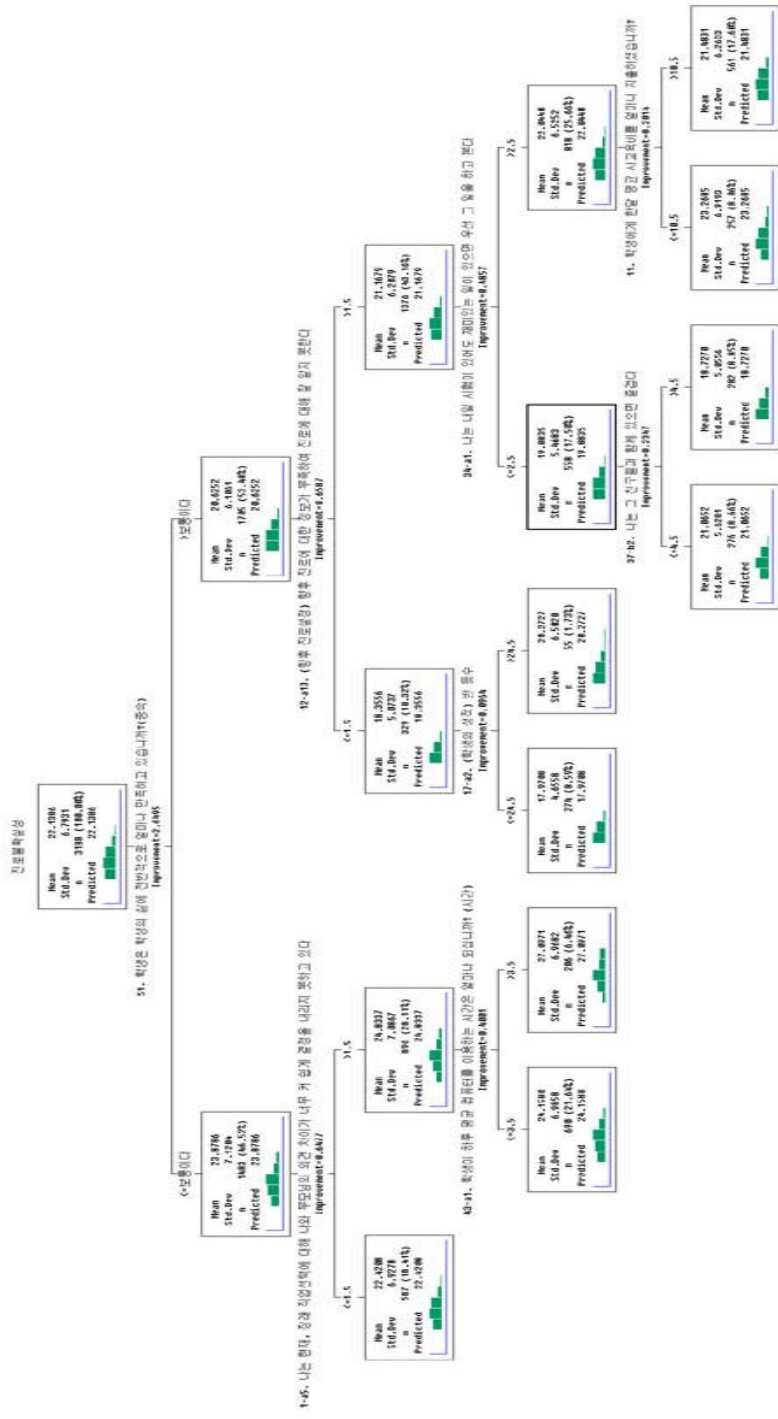
- 1) Node는 의사결정 나무 구조에서 보여주는 마디번호
- 2) Node:n은 해당마디 번호에서의 자료 수
- 3) Node:%는 그 백분율
- 4) Gain은 (Resp:n) / (Node:n)의 비율
- 5) Index(%)는 해당마디에서의 Gain(%) / 전체자료에서의 평균분류의 비율

마디 번호는 윗줄의 왼쪽부터 1번이 되는데, 마디 번호가 3번인 것은 생활만족도가 낮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중학교 2학년생 집단의 특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3번 마디의 자료 수는 562이며 전체의 16.29%를 차지한다. Index(%)를 보면, 8번 마디의 특징을 가진 사람을 중퇴자나 재학생으로 분류하는 것은 아무런 정보를 가지지 않고 분류하는 뿌리 마디에서 보다 113% 이상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는 의미이다. 누적된 이익지수

는 각 마디들이 추가되면서 증감되는 예측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표 IV-1>의 9개 마디로 의사결정 나무를 구성할 때,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즉 간단하면서도 설명량이 큰) 모델이 됨을 의미한다. 이것은 누적된 이익지수의 Index(%)가 100%가 되는 마디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전반적으로 중학교 2학년생의 진로불확실성 모델은 간결하며 효율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모델의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 가지치기(pruning)를 해야 한다면, 11, 15, 13, 16번 마디의 특성을 순차적으로 제외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학교 2학년생 표집을 단순임의추출법으로 분할하여, 교차타당성 평가를 시행해 보았다. 여기서는 전체 응답자를 70%의 훈련 집단과 30%의 타당화 집단으로 나누어 모형을 구축한 후, 이 모형들의 위험평가를 전체 모형의 위험 추정치로 사용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위험 추정치는 동일한 해당 마디에 포함되어야 할 임의의 두 사례가 다른 마디로 구분될 확률을 각 마디별로 합산한 지수이다. 이 모형의 경우 훈련 집단의 위험 추정치가 0.067(표준오차=0.019)이고 타당화 집단의 위험 추정치가 0.088(표준오차=0.022)로, 과잉일반화의 위험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중학교 3학년생(2차년도)의 진로 불확실성 결정모델

중학교 3학년생의 진로 불확실성을 결정하는 모형은 [그림 IV-2]에 제시되어 있다.



중학교 3학년생들은 진로에 대한 부모와의 갈등이 보다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에 대한 부모와의 의견차이가 클수록 진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었으며(24.83), 특히 이러한 중학교 3학년생은 컴퓨터를 이용하는 시간이 길수록(3.5시간 이상) 진로 불확실성은 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컴퓨터를 생활의 불만족 요인과 부모와의 갈등에 대한 도피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원인이 되어 부모와의 갈등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생활 불만족이 증가하는 것인지 보다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

생활만족 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향후 진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경우 진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분한 진로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중 3학생들은 즉흥적인 재미나 친구관계가 보다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험이 임박해서도 재미를 추구하는 학생은 진로에 대한 심각성과 문제의식이 다소 부족하며 자제심의 부족이라는 개인적인 특성도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 이들에게 쓰이는 한 달 사교육비가 10.5 만 원 이하인 경우 진로 불확실성이 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23.27) 이들에게는 특히 정보 제공이나 부모의 지원 및 적극적 관여가 학생들에게 긍정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중학교 2학년생들과 마찬가지로 친구관계를 통해 지지와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부모의 대체라는 시기적 특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반적인 생활만족도가 높고, 진로에 대한 정보도 다양하게 제공받고 있는 학생들이 반 등수가 높을 때 진로 불확실성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었다.

중학교 3학년 모델에서도 진로 문제에 관한 부모와의 갈등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었다. 그러나 친구 관계 이외에도 컴퓨터 등의 매체에 몰입하는 행동이 영향을 끼쳤고, 사교육의 지원 정도나 즉흥적 재미를 추구하는 개인적인 특성이 진로 불확실성을 좌우하는 새로운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학업성적이 진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시사된 것도 이 시기의 주목할 만한 특징이었다.

중학교 3학년은 실업계와 인문계로의 학교를 결정해야 하며 직업분야라

는 진로의 핵심적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기이다. 자신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고 적성이나 진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부모의 강요와 일방적인 방향 제시는 자녀와의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다. 사교육을 통한 부모의 지원이 많지 않을 경우 진로 불확실성이 보다 증가하는 것은 경제적인 곤란함 때문이라기보다는 정보 제공이나 부모의 지원 및 적극적 관여 정도를 시사하는 것이다. 진로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청소년들이 반 등수가 높을 때(학업적 성취가 높을 때) 진로 불확실성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점은 지능과 학업성적은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행동이나 부적응을 감소시키는 결정적인 보호요인이라는 주장(Bhaerman & Kopp, 1988)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시험이 임박해서도 재미를 추구하는 학생은 진로에 대한 심각성과 문제의식이 다소 부족하며 자제심의 부족이라는 개인적인 특성도 작용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부모의 지원과 정보 제공이 불충분할 경우 친구관계의 영향력은 보다 강력해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청소년들의 심리적 준거가 부모에게서 친구로 이행되는 현상은 부모의 지원과 영향이 약화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Christenson, Rounds, & Gorney, 1992).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진로와 관련된 친구의 영향은 당연하고 결정되어 있다기 보다는 부모에 대한 탈동일시 수준과 그 충족 조건에 따라 시기와 그 강도가 좌우되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중학교 3학년생들을 대상으로 한 의사결정 나무분석의 이익도표는 <표 IV-2>에 제시되어 있다.

<표 IV-2> 진로 불확실성 모델(중학교 3학년생)의 이익지수

Node	이익지수				누적지수			
	Node:n	Node:%	Gain	Index%	Node:n	Node:%	Gain	Index%
8	206	6.46	27.10	122.40	206	6.46	27.10	122.40
7	690	21.64	24.20	109.12	896	28.11	24.83	112.17
15	257	8.06	23.30	105.10	1153	36.17	24.48	110.60
3	587	18.41	22.40	101.27	1740	54.58	23.79	107.45
16	561	17.6	21.50	97.04	2301	72.18	23.23	104.91
13	276	8.66	21.10	95.15	2577	80.83	22.99	103.87
10	55	1.73	20.30	91.57	2632	82.56	22.94	103.61
14	282	8.85	18.70	84.59	2914	91.41	22.53	101.77
9	274	8.59	18.00	81.17	3188	100.00	22.14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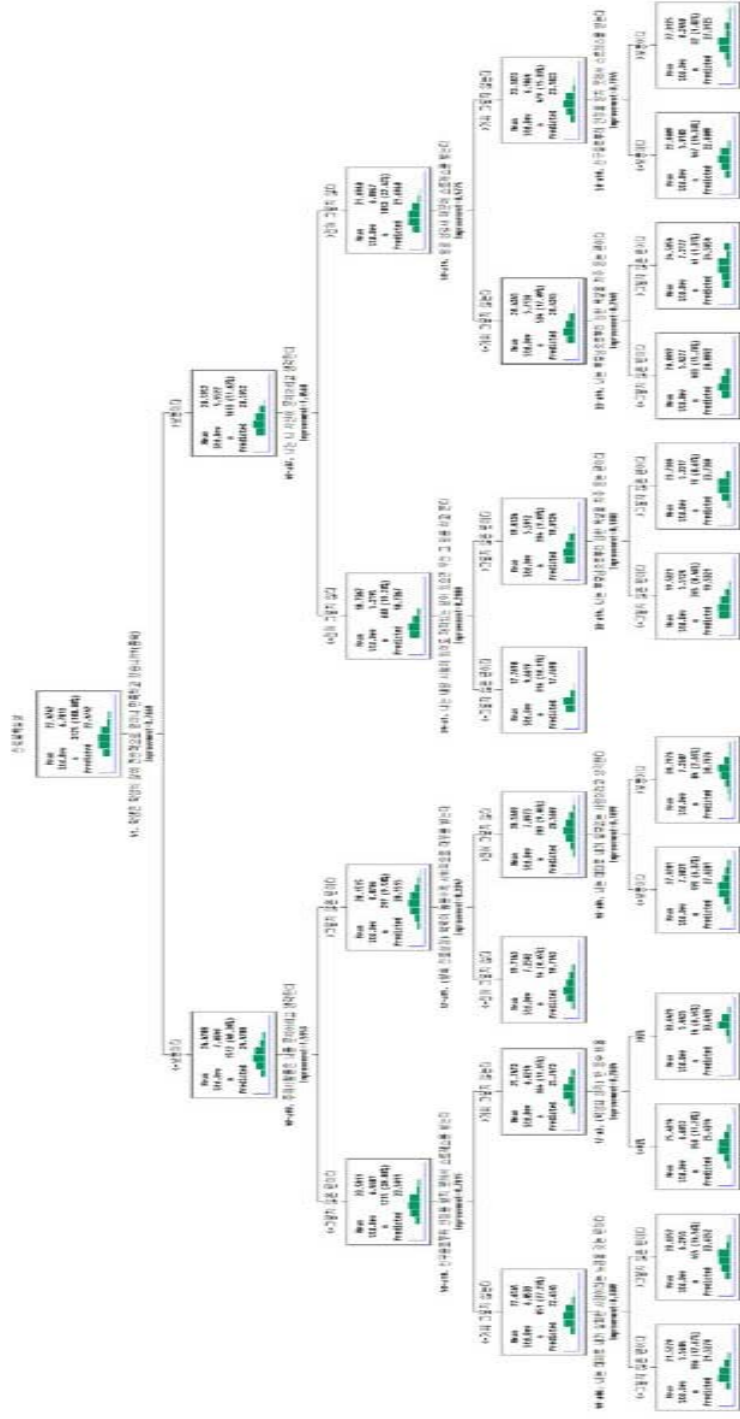
- 1) Node는 의사결정 나무 구조에서 보여주는 마디번호
- 2) Node:n은 해당마디 번호에서의 자료 수
- 3) Node:%는 그 백분율
- 4) Gain은 (Resp:n) / (Node:n)의 비율
- 5) Index(%)는 해당마디에서의 Gain(%) / 전체자료에서의 평균분류의 비율

이익도표에 대한 해석은 상기한 중학교 2학년생들의 의사결정 나무 모형과 동일하다.

이 모형의 경우 훈련 집단의 위험 추정치가 0.480(표준오차=0.025)이고 타당화 집단의 위험 추정치가 0.364(표준오차=0.029)로, 과잉일반화의 위험성은 크지 않은 모형으로 판명되었다.

3. 고등학교 1학년생(3차년도)의 진로 불확실성 결정모델

고등학교 1학년생의 진로 불확실성을 결정하는 모형은 [그림 IV-3]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V-3] 이 책의 주요 키워드

고등학교 1학년생들은 사회적 관계를 통한 자의식이 진로 상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현재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가 낮은 고1 학생들은 주위 사람들이 자기를 문제아라고 생각할수록 진로 불확실성이 두드러지게 더 높았다(28.15). 특히 이들은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는다는 현실에 보다 더 좌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이 기준을 내면화하면서 문제아로서의 자기 지각을 강화하는 것은 자기가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로 불확실성이 극적으로 높아진다(30.79). 친구로부터 잘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진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아 부모의 대체 기준으로서 친구 집단의 영향력이 지속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학생들이 학업 성적이 매우 낮을 경우(반 석차의 백분위가 92% 이상) 진로 불확실성 점수가 가장 높았다(33.64). 친구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실패의 느낌과도 직결되어 있으며 역시 진로 불확실성을 가중시킨다.

스스로가 문제아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가 클 경우(23.10) 진로 불확실성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의식과 친구 관계에서의 좌절적인 경험이 없는 조건일 때 부모와의 갈등이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만 이런 경우 갈등은 보다 극단적이고(욕설을 자주 듣는 등) 이로 인해 진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고등학교 1학년의 진로 결정은 평판과 친구의 인정 등 사회적 자의식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기준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인정과 함께 이 기준에 못 미치는 현실적 자아가 진로 결정을 더욱 불확실하게 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 부모와의 갈등은 이러한 불안정한 심리상태의 결과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중학교 시기와 마찬가지로 학업성적은 보호요인으로서 지속적으로 기능하고 있어 자아상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친구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실패의 느낌과도 직결되어 있었다. 학업성적이 낮을 경우와 친구로부터의 인정은 같은 조건 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학업성적은 친구 관계의 질적 특성이나 패턴 그리고 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일 수 있

다. 이것은 학업성취도가 진로 결정에 핵심적 변인이며 성취에 따른 자신감과 평판이 친구 관계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하화주(199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학력 지향적인 사회현실을 인정하고 또 내재화하면서 결정적인 자원으로서의 학업성취는 심리적인 적응과 만족의 원인이자 결과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등학교 1학년생들을 대상으로 한 의사결정 나무 분석의 이익도표는 <표 IV-3>에 제시되어 있다.

<표 IV-3> 진로 불확실성 모델(고등학교 1학년생)의 이익지수

Node	이익지수				누적지수			
	Node:n	Node:%	Gain	Index%	Node:n	Node:%	Gain	Index%
18	14	0.45	33.64	149.70	14	0.45	33.64	149.69
20	84	2.69	30.80	137.04	98	3.14	31.20	138.84
19	199	6.37	27.63	122.93	297	9.50	28.81	128.18
26	32	1.02	27.31	121.53	329	10.53	28.66	127.54
17	350	11.20	25.43	113.16	679	21.73	27.00	120.12
24	41	1.31	24.59	109.39	720	23.04	26.86	119.51
22	19	0.61	23.74	105.62	739	23.65	26.78	119.16
16	455	14.56	23.64	105.17	1194	38.21	25.58	113.83
25	447	14.30	22.80	101.45	1641	52.51	24.82	110.46
15	396	12.67	21.53	95.78	2037	65.18	24.18	107.60
23	493	15.78	20.09	89.38	2530	80.96	23.39	104.05
18	14	0.45	19.71	87.71	2544	81.41	23.37	103.96
21	265	8.48	19.53	86.90	2809	89.89	23.00	102.36
11	316	10.11	17.77	79.06	3125	100	22.47	100.00

- 1) Node는 의사결정 나무 구조에서 보여주는 마디번호
- 2) Node:n은 해당마디 번호에서의 자료 수
- 3) Node:%는 그 백분율
- 4) Gain은 (Resp:n) / (Node:n)의 비율
- 5) Index(%)는 해당마디에서의 Gain(%) / 전체자료에서의 평균분류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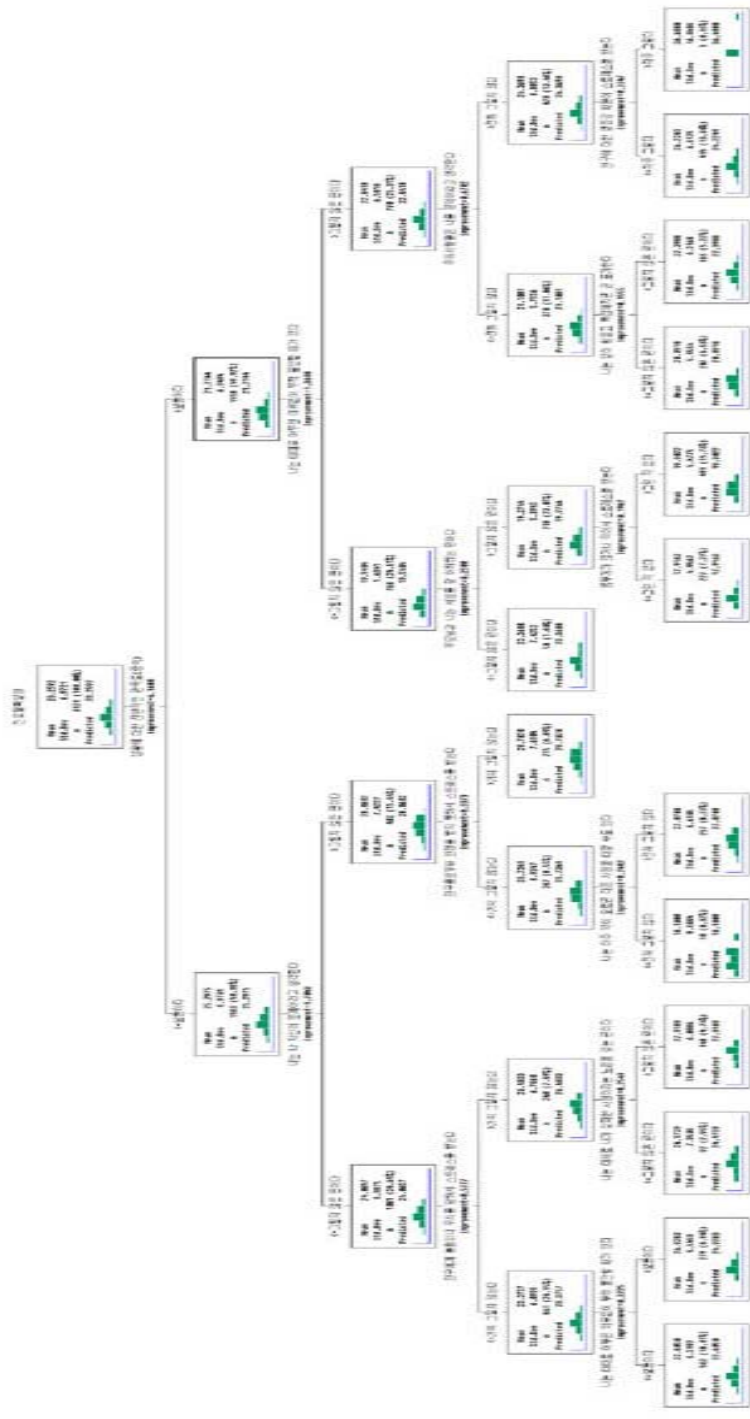
이익도표에 대한 해석은 상기한 이전의 의사결정 나무 모형과 동일하다.

이 모형의 경우 훈련 집단의 위험 추정치가 0.570(표준오차= 0.076)이고 타당화 집단의 위험 추정치가 0.674(표준오차= 0.095)로, 과잉일반화

의 위험성은 역시 그리 크지 않았다.

4. 고등학교 2학년생(4차년도)의 진로 불확실성 결정모델

고등학교 2학년생의 진로 불확실성을 결정하는 모형은 [그림 IV-4]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IV-4] 고등학교 2학년생의 진로 불확실성 모델

고등학교 2학년들의 진로 불확실성 모델에서는 개인적인 특성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확인되었다. 이 시기는 성격이나 지능과 같은 개인차 변인이 확립단계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개인의 심리사회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진로 불확실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생활만족도가 낮은 고등학교 2학년생들은 전반적인 불만족 요인을 자기 자신의 문제로 귀인할 경우 보다 진로에 확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28.06). 이러한 자신의 문제들로 인해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진로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지거나(29.7) 충동성이나 통제력의 부족 등이 시사되는 개인적 특성이 있을 경우에도(약이 오르면 다른 사람을 때릴 수도 있다) 진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친구들의 놀림이나 무시를 받더라도 부정적인 자아상이 두드러지지 않을 경우 진로 불확실성이 감소하였고, 놀림이나 무시가 없어도 신경증적 경향성으로 추정되는 정서적인 불안정성이 클 경우 진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는 이전 시기와는 달리 친구들의 영향이 결정적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특성과 상호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는 특별한 이유 없이도 정서적인 격변이나 혼란의 여지가 있는 취약한 시기인 것으로 시사되고 있다. 이 시기에 친구와 부모는 사회적 지지원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변에서 자신을 문제아라고 여기고 있고 친구들에게 열등감을 느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진로 불확실성이 가장 높았다(36.40). 인내심이나 자제력이 특히 부족한(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한다) 고2 청소년들은 이 시기가 대단히 부적응적일 수 있다. 부모가 지지해주는 않는 경우(서로 잘 이해하지 않을 경우)에도 진로 불확실성이 증가하며, 부모의 이해와 지지가 있더라도 신체상(외모)에 관한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전반적으로 이 시기는 개인의 심리적 특질과 사회적 지지 그리고 신체상으로 인해 불안정하고 불만족스러운 진로 상태가 야기되는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교 2학년 모델에서는 성격이나 지능과 같은 개인차 변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실제로 충동성이 높고, 신경증적 경향성으로 추정되는

정서적인 불안정성이 있을 경우 그리고 통제력의 부족 등이 시사되는 개인적 특성이 있을 경우에 진로 불확실성이 가중되었다. 또한 이들이 전반적인 불만족 요인을 자기 자신의 문제로 귀인할 경우 보다 진로에 확신이 없는 것은 귀인(attribution)이라는 특성도 안정된 개인차 변인이기 때문(Paniagua, 1994)일 수 있다. 학업에서의 성취도나 성적 등위가 상당부분 결정된다고 보여지는 고 2시기에 성적으로 인한 영향이 드러나지 않은 것은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우 학업성적은 심리적 문제를 촉발, 과장시키는 원인이자 심리적 부적응의 결과일 수 있다(한국청소년상담원, 2002). 학업성적으로 상당부분 진로가 결정되는 한국적인 현실을 감안한다면 성적변인이 두드러지게 작용하지 않은 것은 이 시기가 성적으로 인한 진로 상황을 이미 전제하고 인정한 상태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성적 등으로 인해 성취와 한계가 개인적 특질의 취약성을 두드러지게 증폭시켰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후에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신체상(외모)에 관한 스트레스에서 성차가 보고된 연구가 많다(Peterson, Sarigiani, & Kennedy, 1991).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성을 구분한 모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탈동일시의 양상과 친구 관계의 패턴에 성차가 발견된 연구(Trusty & Dooley-Dickey, 1993)가 많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연령별 그리고 성별 조합으로 흥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교 2학년생들을 대상으로 한 의사결정 나무분석의 이익도표는 <표 IV-4>에 제시되어 있다.

<표 IV-4> 진로 불확실성 모델(고등학교 2학년생)의 이익지수

Node	이익지수				누적지수			
	Node:n	Node:%	Gain	Index%	Node:n	Node:%	Gain	Index%
26	5	0.16	36.40	156.50	5	0.16	36.40	156.50
10	215	6.89	29.71	127.72	220	7.05	29.86	128.38
18	148	4.74	27.92	120.03	368	11.79	29.08	125.02
20	257	8.23	27.07	116.38	625	20.03	28.25	121.47
16	279	8.94	24.93	107.18	904	28.97	27.23	117.06
25	415	13.3	24.22	104.15	1319	42.26	26.28	112.99
17	92	2.95	24.17	103.93	1411	45.21	26.14	112.41
11	50	1.60	23.36	100.43	1461	46.81	26.05	111.99
15	562	18.00	22.60	97.19	2023	64.82	25.09	107.88
24	163	5.22	22.40	96.30	2186	70.04	24.89	107.02
23	207	6.63	20.09	86.38	2393	76.67	24.48	105.23
22	491	15.7	19.90	85.57	2884	92.41	23.70	101.89
19	10	0.32	18.10	77.82	2894	92.73	23.68	101.80
21	227	7.27	17.92	77.03	3121	100.00	23.26	100.00

- 1) Node는 의사결정 나무 구조에서 보여주는 마디번호
- 2) Node:n은 해당마디 번호에서의 자료 수
- 3) Node:%는 그 백분율
- 4) Gain은 (Resp:n) / (Node:n)의 비율
- 5) Index(%)는 해당마디에서의 Gain(%) / 전체자료에서의 평균분류의 비율

이 모형의 경우 훈련 집단의 위험 추정치가 0.323(표준오차= 0.023)이고 타당화 집단의 위험 추정치가 0.478(표준오차= 0.073)로, 과잉일반화의 위험성은 매우 작았다.

V. 요약 및 제언

1. 연구의 요약
2. 정책적 제언

V. 요약 및 제언

1. 연구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중2패널의 1, 2, 3, 4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진로 발달과 관련된 많은 변인들 중에 어떤 변인들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상호 작용하여 진로 선택에 이르는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독립변인들은 인구 통계학적인 상태들과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제반 변인들이며 종속변인은 학생들의 신체, 심리, 사회적인 제반 상태로 추정된 진로상황의 불확실성이다. 여기서 진로 불확실성은 단순히 취업이나 학업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연령 증가에 따른 제반 과업들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총체적 상태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명명 척도와 연속 척도 등이 혼합된 400여개의 독립변인들을 동시에 투입하여, 연속형 종속변인인 진로상황의 불확실성 정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변별하는 독립변인들의 조합조건들을 각각 연령대별(중2, 중3, 고1, 고2)로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중학교 2학년생의 진로 불확실성

중학교 2학년생의 진로 불확실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예측하는 변인은 생활만족도로서 만족도가 보통이하일 경우 진로 불확실성이 증가하였다(24.23). 특히 생활만족도가 낮은 학생들은 학교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 할수록 진로 불확실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25.42). 이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보통 이상인 학생들은 특히 수학 성적이 못하거나 그 이하(매우 못하는 경우) 진로 불확실성이 증가하였다. 특히 이 조건의 학생들은 부모님의 기대가 벅차다고 느끼는 경향이 많을수록(24.23) 더 불확실성이 증가하였다. 부모님의 기대와 상충하지 않거나 벅차다고 느끼지 않은 경우에는 진로

불확실성이 높지 않았으나(21.79) 이 경우라도 아버지의 학력이 높은 경우 불확실성이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만족도가 높고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도 친구 관계가 좋지 않을 경우 불확실성이 증가하였다. 부모기대와의 상충은 이러한 특성을 가진 학생들에게도 진로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이었다.

수학을 못하는 학생이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기준을 수용할 경우,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학력이 높은 아버지의 기대에,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학력이 높은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벅차고 힘들 경우, 진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이는 중학교 2학년 모델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이었다.

2) 중학교 3학년생의 진로 불확실성

중학교 3학년생들은 진로에 대한 부모와의 갈등이 보다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에 대한 부모와의 의견차이가 클수록 진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었으며(24.83), 특히 이러한 중학교 3학년생은 컴퓨터를 이용하는 시간이 길수록(3.5시간 이상) 진로 불확실성은 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만족 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향후 진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경우 진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쓰이는 한 달 사교육비가 10.5 만 원 이하인 경우 진로 불확실성이 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23.27) 이들에게는 특히 정보 제공이나 부모의 지원 및 적극적 관여가 학생들에게 긍정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전반적인 생활만족도가 높고, 진로에 대한 정보도 다양하게 제공받고 있는 학생들이 반 등수가 높을 때 진로 불확실성은 급격하게 줄어든다고 있었다.

중학교 3학년 모델에서도 진로 문제에 관한 부모와의 갈등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었다. 그러나 친구 관계 이외에도 컴퓨터 등의 매체에 몰입하는 행동이 영향을 끼쳤고, 사교육의 지원 정도나 즉흥적 재미를 추구하는 개인적인 특성이 진로 불확실성을 좌우하는 새로운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학업

성적이 진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시사된 것도 이 시기의 주목할 만한 특징이었다.

3) 고등학교 1학년생의 진로 불확실성

고등학교 1학년생들은 사회적 관계를 통한 자의식이 진로 상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현재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가 낮은 고1 학생들은 주위 사람들이 자기를 문제아라고 생각할수록 진로 불확실성이 두드러지게 더 높았다(28.15). 특히 이들은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는다는 현실에 보다 더 좌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이 기준을 내면화하면서 문제아로서의 자기 지각을 강화하는 것은 자기가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로 불확실성이 극적으로 높아진다(30.79). 친구로부터 잘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진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아 부모의 대체 기준으로서 친구 집단의 영향력이 지속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학생들이 학업 성적이 매우 낮은 경우(반 석차의 백분위가 92% 이상) 진로 불확실성 점수가 가장 높았다(33.64). 친구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실패의 느낌과도 직결되어 있으며 역시 진로 불확실성을 가중시킨다.

스스로가 문제아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가 클 경우(23.10) 진로 불확실성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의식과 친구 관계에서의 좌절적인 경험이 없는 조건일 때 부모와의 갈등이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만 이런 경우 갈등은 보다 극단적이고(욕설을 자주 듣는 등) 이로 인해 진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고등학교 2학년생의 진로 불확실성

고등학교 2학년생들의 진로 불확실성 모델에서는 개인적인 특성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확인되었다. 생활만족도가 낮은 고등학교 2학년생들은 전반적인 불만족 요인을 자기 자신의 문제로 귀인할 경우 보다 진로에 확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28.06). 이러한 자신의 문제들로 인해 친구들에게 인

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진로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지거나(29.7) 충동성이나 통제력의 부족 등이 시사되는 개인적 특성이 있을 경우에도(약이 오르면 다른 사람을 때릴 수도 있다) 진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친구들의 놀림이나 무시를 받더라도 부정적인 자아상이 두드러지지 않을 경우 진로 불확실성이 감소하였고, 놀림이나 무시가 없어도 신경증적 경향성으로 추정되는 정서적인 불안정성이 클 경우 진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는 이전 시기와는 달리 친구들의 영향이 결정적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특성과 상호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중학교 2학년은 학력이 높은 부모의 기대가 큰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중학교 3학년 모델에서도 진로 문제에 관한 부모와의 갈등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었고 친구관계와 컴퓨터 등의 매체에 몰입하는 행동이 영향을 미쳤다. 고등학교 1학년생들은 사회적 관계를 통한 자의식이 진로 상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고등학교 2학년생들의 진로 불확실성 모델에서는 개인적인 특성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확인되었다. 이 시기는 이전 시기와는 달리 친구들의 영향이 결정적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특성과 상호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발달단계에 따라 적응 및 부적응 양상의 영향이 부모 → 친구 → 자의식 → 개인적인 특성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정책적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진로 상황에 관한 위험 요인들(risk factors)을 제거하고 보호 요인들(protective factors)을 개발하려는 정책 분야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1) 진로 발달에 대한 맞춤형 관리 시스템 구축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마이닝을 통한 모형의 구축으로 청소년의 진로상황이나 생활만족도에 관한 결정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이나 관계를 검증하여 개별적인 맞춤형 개입방안(tailored intervention)을 시사하고자 하였다.

데이터 마이닝을 이용하여 다양한 요인들(인구 통계학적 특징, 직업선택, 향후 진로설정, 진로준비, 여가상황, 기타생활, 시간배분, 자아관, 생활스트레스 그리고 가족관계 및 사회 경제적 환경)을 세분화할 수 있다. 학교생활기록부 및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활용한 진로교육을 추진하고 특정한 상태에 있는 청소년의 진로상황이나 생활만족도를 가장 잘 설명하는 구체적인 조건들을 고려한 상담 모형을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학교 교육과정 및 체험 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 강화

현재 중등학교는 입시위주 교육에 치중하여 학교의 진로교육 기능이 미흡하다. 국민공통기본 교과 중 일부 교과(기술·가정, 도덕, 사회 등)에서 진로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발달적 연계가 미흡하고 관련 내용도 부족한 실정이다. 고등학교에서 「진로와 직업」 교과를 선택·운영하고 있으나 담당교사의 전문성이 미흡하고, 진로교육을 운영하는 주요통로로 활용되고 있는 창의적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은 일회적이며 단편적인 활동에 치중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도 진로 관련 도움 프로그램이 거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특히 학교 장면에서의 비접근성으로 설명되며 전문성이 없는 지도자에 의해 수행되었거나 유명무실한 제도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학교 교육과정 및 체험 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3) 진로교육 담당교사 전문성 제고

교사의 위상과 역할은 그들이 실제적인 진로 상담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심각하게 재고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역할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청소년들은 교사들을 합리적인 의사 결정의 정보원으로서 활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직관과 판단을 단정하기 위한 부차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들은 교사를 부모보다 권위 없는 부모의 대리자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교사 양성 과정에서 진로교육 관련 내용을 다양화하고, 부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진로교육 관련 교사 연수 프로그램의 경우의 양적·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4) 저소득층을 위한 진로 관련 프로그램 서비스 확대

저소득층 자녀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중학교 3학년생들은 그들에서 쓰이는 사교육비가 10.5만원 이하인 경우 진로 불확실성이 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청소년의 근로의욕 고취 및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직업체험, 교육훈련 및 취업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여 저소득층 자녀의 진로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어야 한다. 지역사회단체,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이 협력한 진로지도, 직업알선 및 직업훈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직업능력 및 취업능력 개발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가장을 대상으로 생계안정 및 취업알선 지원을 강화하며, 전문상담 및 직업훈련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참 고 문 헌

- 강민주·전경숙(1995).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능력지각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제16권 제1호, pp.197-209.
- 강상민(2002). 중학생의 목표 지향성, 자기 조절 학습 및 자기 효능감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고병채(1990). 자아개념, 귀인성향,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간의 상관관계 및 그 변인들의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연희(1998).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및 귀인 성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은식(2002).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행동에 관련되는 사회 심리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병진(2006). 재능의 상실: 사회경제적 지위, 상황정의에 따른 차이. 제3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pp. 31-65.
- 송호창(2006).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애착과 자기효능감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현숙(2004). 가정환경 역경에 적응유연한 청소년의 보호요소에 관한 연구: 학교적응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제5권 제1호, pp. 141-161.
- 알렉스 버슨 외 지음. 홍성완 외 옮김(2000). CRM을 위한 데이터마이닝. 대청
- 이경상·강영배(2006). 청소년의 선호직업 및 직업가치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경아·정현희(1999).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교사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제11권 제2호, pp. 213-226.
- 이은영·탁영란(2001). 청소년의 성차에 따른 자아존중감,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아동간호학회지, 제7권 제4호, pp.474-482.
- 이은희·최태산·서미정(2000). 남녀 청소년들의 우울에 미치는 학교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부모의 내재적 지원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제12권 제2호, pp. 69-84.
- 이지연·하정희·전수현(2006). 성취상황에서 부모태도가 청소년의 미래성공기대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과 우울을 매개로. 교육심리연구, 제20권

- 제4호, pp. 873-890.
- 이혜영(2001). 학업중도탈락의 실태와 학교에서의 대처방안.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추계학술 발표대회: 학업중도탈락과 청소년복지, pp. 7-23.
- 장영주(1995). 아동·청소년기 자녀의 자아개념과 부모의 양육태도의 관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규석(2004). 사회적 관계요인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제56권 제1호, pp. 235-252.
- 최돈민·양흥권·이세정(2005).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 실태 조사. 한국교육개발원.
- 최지은·신용주(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 또래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관리학회지, 제41권 제2호, pp. 199-210.
- 하화주(1999). 고교생의 의사결정 유형과 대학진학 의사결정 유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청소년상담원 (2002). 학업중단 청소년 사회적응을 위한 지역단위 관련기관간 연계협력체제 구축방안.
- 홍혜영(1995). 완벽주의 성향, 자기 효능감 및 우울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vison, W. R. & McAlpine, D. D.(1992). Gender differences in symptoms of depression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 33, pp. 77-96.
- Ball, M.J.(2000). International Efforts in Informatics: Creating a Global Village for healthcare. *M.D. Computing* May/June 2000, 50-53.
- Battin-Pearson, S., Newcomb, M. D., Abbott, R. D., Hill, K. G., Catalano, R. F., & Hawkins, J. D.(2000). Predictors of early high school dropout: A test of five theori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92 No. 3, pp. 568-582.
- Bhaerman, R. D., & Kopp, K. A.(1988). The school's choice: Guidelines for dropout prevention at the middle and junior high school. Columbus, OH: The National Center for Research in Vocational Education, Ohio State University.
- Birch, S. H. & Ladd, G. W.(1997). The teacher-child relationship and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Vol. 35, pp. 61-79.
- Bowlby, J.(1982). Attachment and loss: Vol. I. Attachment(2nd ed.).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1988). A secure base: Parent-child attachment and healthy human

- development. New York: Basic Books.
- Brage, D. & Meredith, W.(1994). A casual model of adolescent depression. *The Journal of Psychology*, Vol. 128, pp. 455-468.
- Brown, J. D. & Mankowski, T. A.(1993). Self-esteem, mood, and self-evaluation: Changes in mood and the way you see you.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4, pp. 421-430.
- Christenson, S. L., Rounds, T., & Gorney, D.(1992). Family factors and student achievement; An avenue to increase students' success. *School Psychology Quarterly*, Vol. 7 No. 3, pp.178-206.
- Doll, B.(1996). Children without friends: Implications for practice and policy. *School Psychology Review*, Vol. 25, pp. 165-183.
- DuBois, D. L., Felner, R. D., Brand, S., Adem, A. M. & Evan, E. G.(1992). A prospective study of life stress, social support, and adaptation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Vol. 63, pp. 542-557.
- Furman, W. & Burhmester, D.(1992). Age and sex difference in perception of networks of personal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Vol. 63, pp.103-115.
- Josephs, R. A., Markus, H. R. & Tafarodi, R. W.(1992). Gender and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3 pp. 391-402.
- King, K. C., Hyde, J. S., Showers, C. J. & Buswell, B. N.(1999). Gender differences in self-esteem: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Vol. 125, pp. 470-500.
- Paniagua, F. A.(1994). *Assessing and treating culturally diverse clients*. Thousand Oaks, CA: Sage.
- Peterson, A. C., Sarigiani, P. A., & Kennedy, R. E.(1991). Adolescent depression: Why more girl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20, pp. 247-271.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yan, R. M., Stiller, J. D., & Lynch, J. H.(1994). Representations of relationships to teachers, parents, and friends as predictors of academic motiva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Vol. 14, pp. 226-249.
- SPSS Inc.(1998). *Answer Tree 1.0 User's Guide*. Chigago, Spss Inc.
- Trusty, J. & Dooley-Dickey, K.(1993). Alienation from school: An exploratory analysis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perceptions. *Journal of Research and Development in Education*, Vol. 26 No. 4, pp.232-242.

2007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07-R0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 - 조사개요 보고서 / 이경상·김기현·임희진
 07-R01-1 청소년 비행의 발전형태에 관한 연구 / 이경상·이순래·박철현
 07-R01-2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실태의 변화와 특성 / 이경상·유성렬
 07-R01-3 청소년 사교육 이용 실태 및 효과에 대한 분석 / 김기현
 07-R01-4 청소년 진로상황의 불확실성에 대한 보호요인 및 위험요인의 탐색 / 임희진·유제민
 07-R02 한국 청소년 발달 지표조사 II : 청소년발달지표 종합부문 / 임지연·김신영·김정주
 07-R02-1 한국 청소년 발달 지표조사 II : 청소년발달지표 결과부문 / 김신영·임지연
 07-R03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 연구II -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과제
 / 백혜정·최우영·길은배·윤인진·이영란
 07-R04 뉴거버넌스를 통한 청소년행정체계 운영모형 정립 / 오해섭·김영호·이민희
 07-R05 국제기준대비 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연구II - 청소년 인권실태 및 정책방안 / 이종원·장근영·김형주
 07-R05-1 국제기준대비 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연구II - 청소년인권영역별 실태분석 / 이용교·박창남·이중섭
 07-R06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 이춘화·김희균·조아미·황성기
 07-R07 신종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와 대책 - 신종·변종 청소년유해업소를 중심으로 / 김영한·권일남·주동범
 07-R08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I : 청소년 디지털소비 실태와 대책 / 성운숙
 07-R08-1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I : 청소년 디지털소비격차 실태와 대책 / 황진구·유지열
 07-R09 소수집단 청소년들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조사개요보고서 / 이창호·오성배·정의철·최승희
 07-R10 청소년 우대제도의 국제적 동향과 개선방안 / 김경준·최인재·설인자·원구환
 07-R11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실태와 적응과정 연구 / 이해연·서정아·조흥식·정익중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1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 - 부모자녀관계, 교
 사학생관계, 또래관계를 중심으로 / 김현철·김은정·민경석 (자체번호 07-R1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2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 국제비교 / 김
 현철·김은정·손승영·함인희·최연혁·Bahira Sherif Trask, Gudrun Quenzel, Yasuaki
 Aota (자체번호 07-R12-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3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비교 : 면접조사자료집 / 김현철·
 김은정·손승영·함인희·최연혁·배지혜·Bahira Sherif Trask, Melina McConatha Rosle,
 Bethany Willis Hepp·Gudrun Quenzel·Michaela Janotta·Janina Herrmann·Hideki Watanabe·
 Shigeki Matsuda·Yasuaki Aota·Masayuki Ozawa·Peter Strandbrink (자체번호 07-R12-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4 변화하는 가족과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 국제비교 / 김현철 · 김은정 · 최연혁 · 윤인진 · 정재영 · 임창규 · 이선이 · 김현주 · 이여봉 · 박천식 · 배지혜 · Gudrun Quenzel · Katherine Conway-Turner · Hideki Watanabe · Shigeki Matsuda · Yasuaki Aota · Masayuki Ozawa (자체번호 07-R12-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5 청소년기 사회화 담론의 근대적 기원과 그 영향 / 김현철 · 고미숙 · 박노자 · 권인숙 · 나임윤경 (자체번호 07-R12-4)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19-01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활용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조혜영 · 문경숙 (자체번호 07-R1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19-02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활용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방안 연구 II : 국내체류 해외한민족 청소년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 조혜영 · 문경숙 · 박동숙 · 양한순 · 최진숙 (자체번호 07-R13-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19-03 북미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연구 / 윤인진 · 채정민 (자체번호 07-R13-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19-04 중국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연구 / 김익기 · 이동훈 (자체번호 07-R13-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19-05 일본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연구 / 김태기 · 임영언 · 박일 · 배광웅 (자체번호 07-R13-4)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19-06 독립국가연합의 한민족청소년 현황과 생활실태연구 / 임영상 · 황영삼 · 고가영 · 박지배 · 이병조 · 권주영 · 김석원 · 최소영 · 최인나 (자체번호 07-R13-5)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19-07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 중장기대책방안 연구 / 강일규 · 저재식 · 길은배 · 배기형 (자체번호 07-R13-6)

■ 수시과제

- 07-R14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 적응 실태 및 사회 적응 프로그램 개발방안 / 정하성 · 우룡
- 07-R15 청소년수련시설관리운영 방안 / 권일남 · 김혁진 · 오해섭
- 07-R16 청소년육성기금 확충방안 / 원구환 · 김현철 · 백혜정
- 07-R17 YP(청소년 스스로 지킴이)프로그램의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연구 / 우형진 · 김성벽 · 성운숙
- 07-R18 특별지원청소년 세부 선정절차 및 지원방법 연구 / 김경준 · 서정아 · 정익중
- 07-R19 한류가 베트남 청소년의 문화의식에 미치는 영향 / 서동훈 · 박영균
- 07-R20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상근지도자(PM·SM)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 김호순 · 김기현 · 최병훈 · 한도희 · 박재환
- 07-R21 고교생의 생활의식 국제비교 연구 / 이종원 · 이경자 · 임희진
- 07-R22 초등학생의 생활습관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 김현철 · 이경자 · 임희진
- 07-R23 고교생의 소비행동 및 소비의식에 관한 국제의식 연구 / 김현철 · 김진숙

■ 용역과제

- 07-R30 청소년특별회의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오해섭 · 장근영 · 김남정 · 박정배
- 07-R31 청소년지도사 자격 필기시험 면제에 따른 제도 개선 연구 / 김영한 · 서정아
- 07-R32 2007년도 서울시립청소년수련관 시설 · 안전 · 프로그램 평가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연구
/ 김신영 · 오성배 · 양계민
- 07-R33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 / 성운숙 · 임희진
- 07-R34 청소년 자율참여형 학교단체 수련활동의 운영모델 개발 / 임지연 · 연구철 · 이교봉
- 07-R35 2030 청소년 희망세상 비전과 전략 / 김기현 · 조혜영 · 장근영 · 이창호 · 강홍렬 · 고원 · 김민 ·
김은경 · 김지선 · 김현주 · 나의순 · 마경희 · 손승영 · 손유미 · 우명숙 · 이승현 · 임천순 · 전상진 ·
주용국 · 진미석 · 채재은 · 최규종 · 최순종 · 최화영
- 07-R36 청소년희망세상비전 2030총괄분야연구 / 김기현 · 조혜영 · 장근영 · 이창호 · 고원 · 강홍렬
- 07-R37 청소년 통계 혁신방안 / 이경상 · 김기현
- 07-R38 다문화가족자녀의 교사생활과 교사학생의 수용성 / 조혜영 · 이창호
- 07-R39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 프로그램 및 가해학생선도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최인재 · 김경준 ·
백혜정 · 강진구 · 김태희 · 송미경 · 이유미
- 07-R40 제4차 청소년기본계획 수립 연구 / 맹영임 · 조혜영 · 이춘화 · 김경준 · 김현철 · 김기현 · 임희진 ·
임지연 · 길은배 · 김민 · 유홍식 · 전명기
- 07-R41 청소년독서활성화 종합대책 연구 / 황진구 · 김은정 · 백원근 · 허병두
- 07-R42 2007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효과 · 만족도 조사 연구 / 김은정 · 황진구
- 07-R43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규제수용도 조사 연구 / 김영한 · 송병국 · 오홍석
- 07-R44 청소년활동 참가실태 조사연구 / 이종원 · 장근영 · 김호순
- 07-R45 자연(생태)환경활동 영역의 학교교과를 연계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이경자 · 김승규 · 송순재
- 07-R46 2007 청소년백서 / 문경숙 · 김기현
- 07-R47 한국 청소년의 행복지수 조사연구 / 김신영 · 오성배 · 이명진
- 07-R48 질적수급전망분석 / 김기현
- 07-R49 2007 서울시 청소년 건전활동 프로그램 운영평가 / 김현철 · 백혜정
- 07-R50 2007 청소년육성기금공모사업평가 / 김현철 · 백혜정 · 김형주
- 07-R51 2007 청소년쉼터시설종합평가 / 황진구 · 이경상
- 07-R52 2007 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 / 김경준 · 오해섭 · 이해연
- 07-R53 한국 청소년의 가치관 조사연구 / 김신영 · 오성배 · 이명진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07-S01 「2008년도 고유연구과제 발굴 · 선정과 경영혁신 방향설정 워크숍」 (1.23~24)
- 07-S02 「Internation Conference on Changing Family Relationships & Socialization in Adolescence」 (4.20)
- 07-S03 「청소년의 역사사랑 토론회」 (5.12)
- 07-S04 「제주세계자연유산과 함께하는 청소년」 (8.17~18)

- 07-S05 「청소년지도사 자격 필기시험 면제에 따른 전문성 함양 방안」 (6.28)
- 07-S06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방향과 과제(안)」 (7.3)
- 07-S07 「패널데이터 분석방법론 세미나 자료집」 (7.5)
- 07-S08 「청소년 우대제도 국내·외 사례 워크숍」 (7.20)
- 07-S09 「다문화 청소년정책의 과제와 방향」 (7.20)
- 07-S10 「일본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 연구 포럼」 (9.11)
- 07-S11 「청소년 인터넷중독 상담과 치료에 관한 국제심포지움」 (9.13~14)
- 07-S12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 (9.14)
- 07-S13 「뉴거버넌스를 통한 청소년행정체계 운영모형 정립」 (9.14)
- 07-S14 「한민족 청소년과 글로벌 네트워크」 (10.30)
- 07-S15 「2007 고유과제 정책제안 검토 및 중장기 경영목표 수립을 위한 직원 워크숍」 (11.1~2)
- 07-S16 「제4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11.9)
- 07-S17 「질적연구를 통한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연구 세미나」 (11.27)
- 07-S18 「한국과 미국 청소년의 사회화과정 연구 포럼」 (11.29)
- 07-S19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안)」 (12.7)
- 07-S20 「한국의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근대적 담론 형성의 기원과 그 영향」 (12.24)

■ 학술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1호 (통권 제45호) / 연구정보지원팀
-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2호 (통권 제46호) / 연구정보지원팀
-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3호 (통권 제47호) / 연구정보지원팀

■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 기타 발간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타 발간물 01 「자녀의 성공을 위해 부모가 함께 읽어야 할 73가지 이야기」

연구보고 07-R01-4

**청소년 진로상황의 불확실성에 대한
보호요인 및 위험요인의 탐색**

인 쇄 2007년 12월 21일

발 행 2007년 12월 24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행인 이 중 태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크리홍보(주) 전화 (02)737-5377 대표 김규만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정보지원팀)

ISBN 978-89-7816-687-4(93330)